

평안하신지요!

북쪽은 아직 꽃샘추위이겠지만 이곳 남쪽은 봄이 완연합니다. 저희는 지난 보름간 일가족 3 명이 다 오미크론에 걸렸으나,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회복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가격리중 매년 이맘때 피는 목면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3월 첫주 회복후 조깅을 재개하자마자 평소 가던 공원 한구석으로 달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겨우내내 우뚝 서있던 나무 꼭대기에 한아름 목면화가 만면에 미소를 띄고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매일 조깅을 마친뒤 10미터 높이의 그 나무를 바라보며 지난 일년을 기다렸는데, 요동하는 세상과 상관없이 목면화는 올해도 봄이 왔음을 노래하는군요. 그 봄의 노래소리에 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듣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이 오미크론에 걸릴때 홍콩은 이미 5차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날이 끝나면서 본격 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 지금 매일 5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량의 확진자 발생으로 식품공급, 교통, 우편 등 도시 전체의 물류체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자, 장기질환자, 백신 미접종자 등 코로나에 취약한 분들이 있는 700여개의 홍콩 요양원 가운데 이미 70%정도가 감염된 상황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백신 접종이 신속히 진행되고 시민들이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 홍콩교회도 정부에 의해 유사 이래 처음으로 폐쇄령이 내려졌고, 예배당에 백신 접종 목회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목회자 인력이 충분한 대형교회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목회자 1-2명의 소형교회는 봉사자의 손길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170여년의 역사속에서 2차대전을 제외하곤 한번도 교회당 폐쇄를 경험한 적이 없는 홍콩교회는 지금 “교회당이 문을 닫으면 교회도 함께 문을 닫는가?” “만약 건물과 상관없이 교회는 폐쇄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신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라는 신학적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 마르틴 루터의 글을 보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개혁가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역병으로 인해 거의 일평생 흑사병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때 “왜 나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이 시련의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를 질문하자고 하네요. 2년넘게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역병이 폭발한 비텐베르크를 지키면서 말씀봉사와 환자심방을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의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한차원 더 높아지고,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도리어 교회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힘있게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큰 것이 아닐지라도 주변의 “소자”를 향한 작은 관심, 작은 배려, 한통의 전화, 한마디 격려의 문자, 낙심한 자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는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고통가운데 처한 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양약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홍콩교회와 조국교회가 멀리는 전쟁에 처한 우크라이나 지체들과 가까이는 코로나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안에서, 조수아, 송지나, 다희, 중희, 세희 드림

감사: 홍콩의 세식구가 함께 오미크론에서 회복되게 하심, 온라인 종교활동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대처하고 있는 중국교회를 인해, 5 차유행 기간중에 지역교회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눔.

기도제목:

1. 매일 말씀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2. 5 차 대확산 시기에 홍콩교회가 믿음과 사랑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3. 온라인 금지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요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온라인 세미나가 계속된다: 3. 9 일 동남아 C 국의 중국선교사 8 가정을 대상으로 “선교와 가정” 일일세미나, 3.14 N 시 목회자그룹을 대상으로 일일 선교세미나, 3.13 부터 8 주간 G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선교사자녀 돌봄이 훈련, 4.7-9 J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선교와 가정 세미나, 3.7 부터 Z 단체를 대상으로 8 번에 걸쳐 선교와 가정 세미나 실시; 이 모든 훈련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4. 중국교회와 협력하여 선교사 발굴을 위한 선교사훈련원을 동남아 A 국에 설립 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2023 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중인데, 설립위원회가 한마음으로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5. 이를 위해 John/Pauline 선교사 가정이 금년 5 월말 A 국으로 재배치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순간 경험하도록.
6. 태국에서 한 텀을 마치고 본국 우크라이나로 귀국한 우리 동료가 전쟁이 발발하자 홀로 계신 어머니를 폴란드 국경으로 안전하게 피난시킨후, 자신은 키이우로 돌아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멀리만 느껴지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지체의 일이 되어버렸다. 동시에 전쟁을 반대하는 글로벌 교회의 러시아 형제자매들도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봄을 노래하는 “영웅의 나무” (10 미터 이상의 높이로 영웅의 자태를 자랑한다하여 이름 붙여짐) 와 그 나무의 목면화